‘밤에도 불이 꺼지지 않는 교실’

유암 스쿨 업그레이드 프로젝트Ⅰ 운영

포천시 군내면 소재 유암초등학교는 제7차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학습 결손이 발생한 아동들에게 '夜學'을 실시하고 있다.

늦은 밤 환한 불빛아래 꿈을 키워 가는 학교가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최근 제7차 교육과정의 특징 중 하나는 국어 및 수학과목의 학습 결손 보충을 위해 '특별보충과정'을 편성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포천시 군내면 소재 유암초등학교(교장 송종길)는 제7차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학습결손이 발생한 아동들에게 학습의 기쁨을 갖도록 하여 자기주도적이고 창의적인 학습태도로 자신의 학력을 높여 갈 수 있도록 '夜學'을 실시하고 있다.

사교육비 경감은 물론 학생들의 실력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유암 스쿨 업그레이드 프로젝트Ⅰ'은 주간반과 야간반으로 나눠 실시하고 있다.

주간반은 1,2,3학년을 대상으로 1학기 20시간, 2학기 20시간 등 모두 40시간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담임교사가 직접 운영하고 있다.

야간반은 일명 '야학'으로 오후 6시30분부터 8시까지 실시하고 있으며 국어 탐구반, 수학 튼튼반과 수학 실력반 등 모두 2개의 반을 운영하고 있다.

국어탐구반은 국어 특별 보충과정반, 수학 튼튼반은 수학 특별 보충과정반으로써 진단평가 결과 및 담임교사의 판단에 따라 4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학생을 대상으로 개별화 지도를 실시한다.

수학 실력반은 수학 심화반으로써 4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부모 동의후 개별화 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국어 탐구반과 수학튼튼반은 유암초등학교에서 자체 제작한 교재를 활용하여 수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수학 실력반은 학부모들의 과반수가 찬성한 문제집을 가지고 1대1 개별화 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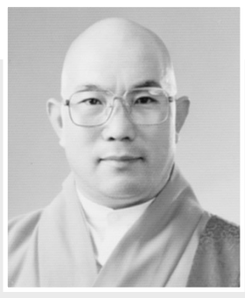
야학을 실시하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스스로에게 달라진 점에 대해 공부하는 습관이 달라졌다는 응답이 19명, 공부시간 10명, 학업성취도가 달라졌다는 응답이 10명으로 나타났다.

또 학생들은 자신에게 야학이 어떤 도움이 되느냐는 설문에 '집중이 잘 되고 학습 효과가 크다', '스스로 공부할 수 있게 되었다', '예습복습을 하게 된다'고 응답했다.

송종길 교장은 이 프로그램에 대해 "야간에는 주위소음이 적고 집중도가 높아지며 집에 있으면 TV시청이나 인터넷게임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못하는 점, 서로 몰려다닐 수 가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생활지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교육의 효과를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포천쉼터



석혜승
보문정사 주지

운(運)

무슨 일을 하더라도 먼저 설계를 하고 계획에 맞춰 움직이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이 세상은 의외로 계산대로 되지 않을 때가 참 많다. 예상치 못한 일이 꼭 발생하기 마련이다. 그래서 어떤 일을 성취함에 있어 운(運)이라는 것은 제삼의 요소가 되기도 한다.

이 운이라는 것은 개인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불가에서 자주 쓰는 말 중에 줄탁동시(茁啄同時)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뜻은 달걀이 부화될 때, 병아리가 알에서 나오려고 알 속에서 콕콕 쪼아대는 것을 줄(茁)이라고 하고, 바깥에 있는 어미 닭이 콕콕 쪼아주는 것을 탁(啄)이라고 한다. 이 줄과 탁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날개를 단 병아리가 된다는 말이다.

운(運)이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 때문에 개인의 노력만 있으면 된다는 생각으로는 운을 불러 오지 못한다. 물론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그것이 다는 아니다. 관계를 무시한 노력은 결코 운이 따르지 않는다. 오히려 불운만이 있을 뿐이다. 좋은 관계를 동반한 나의 노력이 운을 부른다.

필자연락처 031-542-0032

“할머니 만수무강하세요”

나지르마을 세 분의 노인 생일잔치

천주교 춘천교구 소속 무료양로원인 나지르마을(포천시 신북면 계류리 607번지)에서는 지난달 28일 세 분의 할머니 생신을 축하하기 위해 동네 어른들을 포함에 1백여명의 사람들이 모였다.

이날 박순철 할머니(90세), 윤순자 할머니(90세), 이혜자 할머니(70세) 등 3분의 생일상을 차리고 축하에 나선 단체는 포천메나리와 포천국악협회, 우리춤체조, 한동엽무용단, 소리여울 등이다.

또 포천시문화예술봉사단 소속 손병락씨는 음향기기를 제공하고 음향감독으로 나섰으며 포천예총 김진동 회장은 단소연주로 노인들의 생일잔치를 빛내기도 했다.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아 준비한 이날 생일상에 참석한 노인들은 축하 케익을 자르면서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무대를 마련한 참가단체 회원들의 정성으로 이곳에 계시는 세 분의 노인 분들은 물론이고 다른 노인들의 마음이 한껏 환해졌다.

특히 계류리에 살고 있는 마을 주민들도 함께 즐거운 시간을 통해 지역주민들간의 화합과 단합의 계기가 되기도 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임갑연 포천시문화예술봉사단 사무국장은 "우리 모두 함께 힘을 모아 소외된 노인들에게 아름다운 공연을 보여줌으로써 보여주는 기쁨은 물론 받는 노인 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천주교 춘천교구 소속 무료양로원인 나지르마을에서는 지난달 28일 세 분의 할머니 생신을 축하하기 위해 동네 어른들을 포함에 1백여명의 사람들이 모였다.

인터넷 통한 농촌체험관광 시도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알찬 내용으로 인기

포천시 군내면 버섯마을과 신북면 지동산촌마을, 관인면 숯골마을 등 포천시 정보화마을을 소개하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다양하고 알찬 구성으로 눈길을 모으고 있다.

'정보화마을'은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구축, 운영되고 있는데, 네티즌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농촌체험관광과 특산물 등에 관한 정보를 접할 수 있다.

또 해당 지역 주민들도 관광객 유치와 특산품 판매 등을 통해 소득증대를 이루는 것은 물론, 마을 게시판과 정보센터, 사랑방 등을 통해 급변하는 정보화 시대에 적응하며 새로운 온라인 지역공동체를 형성해 나가고 있다.

▶자연이 빚어낸 건강의 원천, 포천 버섯마을

먼저 포천 버섯마을 홈페이지(http://mushroom.invil.org)에는 식용버섯, 약용버섯, 야생버섯, 독버섯 등 50여 종류의 버섯에 대한 정보가 가득하며 버섯의 역사와 재배과정, 영양과 효능, 좋은 버섯을 고르는 요령 등의 정보를 접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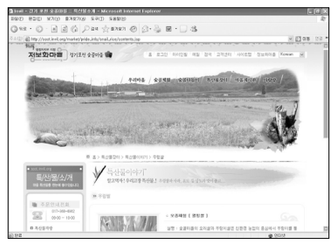
또 이곳을 통해 각종 버섯과 버섯을 이용한 가공품, 산포도 등의 지역 특산물을 구입할 수 있으며, 버섯마을 체험관광과 수원산 주말농장도 예약할 수 있다.

이 밖에 포천향교, 반월성지 등의 마을주변 유적지, 운악승마클럽, 웨스턴밸리 사격장, 배상면주가, 직두낚시터 등의 관광지, 유명 식당 등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천년을 한마음으로 지켜온 푸르름의 조화, 지동 산촌마을

포천 지동산촌마을 홈페이지(http://jidong.invil.org)에서는 먼저 마을 관광에 관한 정보가 눈길을 끈다.

천년 수령의 은행나무와 효자문을 돌아보는 시간여행, 산길과 갈월버섯농원을 통한 숲속여행, 허브아일랜드와 청산식물원에서 맛보는 향기여행, 신북온천에서 체험하는 미용여행, 금곡유원지를 둘러보는 놀이여행 등, 마을 관광정보가 풍성하다. 특산물장터에서는 잣, 은행, 산나물, 한봉꿀 등을 소개, 판매하고 있으며 요리방법과 특산물을 고르는 요령도 안내하고 있다. 또 이곳 홈페이지를 통해 산촌 체험프로그램을 예약하고 민박에 관한 정보도 얻을 수 있다.



포천 숯골마을 홈페이지(http://soot.invil.org)에는 다양한 농촌체험에 관한 안내가 흥미로운데 우렁쌀 모내기체험, 숯골사과/포도/버섯따기, 장담그기 등의 체험프로그램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

마을관광지로는 보가산성, 신흥사지, 화적연, 지장산, 종자산, 냉정저수지 등이 소개되고 있으며 기타 주변관광지와 민박, 음식점 등에 관한 정보도 실려있다.

온라인 특산물 장터에서는 우렁농법을 통한 유기농쌀을 비롯해 우렁사과, 버섯, 숯골포도, 산나물 등을 구입할 수 있다.

박영남 기자 varanasise@naver.com

특별기고

자연에 대한 상처 최소화하는 자연건축

최근 자연건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흙 건축학교를 주말에 열어 포천시민들에게 자연건축을 알리고 있는 의료법인 해동의료재단 포천노인전문병원 장덕철 한방원장의 특별기고를 연재하는 것은 포천시의 자연환경에 걸맞는 자연건축의 개념을 정립하고 무분별한 자연건축의 유행에 대해 함께 깊이 생각하자는데 그 의미가 있다. 〈편집자주〉

장덕철
흙건축 학교장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웰빙'이란 단어가 마치 유행어처럼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요즘, 먹을 것과 입을 것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지불하고서라도 '웰빙'이란 이름이 붙은 상품을 선택하고 있다. 주택의 경우에 있어서도 황토가 몸의 건강에 좋은 성분이 풍부하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로 최근에 '황토집'을 현재 지어서 살고 있고, 또한 장래에 그런 집을 짓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다.

그러나 '자연건축'의 개념은 건축 재료의 측면에서만 한정되는 개념은 아니다.

'자연건축'이란 자연의 재료를 이용하여, 자연 에너지(태양에너지, 바람 에너지 등)를 최대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자연의 디자인 원리를 도입한 건축이라 할 수 있다. 앞으로의 이야기는 이러한 정의에 대해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될 것이다.

지구상에 인류가 출현한 이래로 유럽에서 시작된 산업혁명 시대에 철근과 시멘트 등의 '상품화되고 공업화된 건축 재료'가 등장하기까지는 사람들은 자기가 사는 근처의 흙과 돌과 나무 등의 자연재료를 사용하여 집을 지어왔다. '자연건축'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옛사람들은 '자연건축'이란 말은 사용하지 않았다. 그냥 그것이 그들의 자연스러운 건축방법이었고, 그것이 전부였기 때문이다. 거기에 비교되는 다른 건축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자연건축 - 또는 생태건축, 친환경 건축'이란 개념은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의 시대를 거친 미국과 유럽 등의 서구 자본주의 국가에서 출발한 개념이다. 산업혁명이후 서구의 자본주의 국가와 국민들의 목표는 상품의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였다. 그 국가들은 '과학'의 힘을 빌어 그러한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하게 되고 소위 '풍요의 시대'를 거치게 된다. 그러나 얼마 못 가서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를 특징으로 하는 '풍요의 시대'가 '대량 폐기' 즉 공해를 수반한다는 사실에, 그리고 '생산'을 더 많이 하면 할수록 거기에 비례해서 '공해'도 비례하여 증가한다는, 즉 '공해'라는 사실에 직면하게 된다. 또한 공해는 더 이상 '처리 불가능'이며 감소하지 않고 증가하는 방향으로만 나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또한 '물질의 대량생산과 소비'가 삶의 궁극적 목표인 '행복의 대량생산'에 연결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여기에서 새로운 시각에서 '인간의 행복'을 바라보는 소수의 '새로운 족속'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인간의 역사를 '물질 분배의 불평등'에 대한 투쟁의 역사라고 보았고, 그 한사람의 생각은 거의 100년 동안 전 세계를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전쟁터로 만들게 된다. 전쟁의 결과는 자본주의의 압도적 승리. 공산주의의 '이념'이 자본주의의 '상품'에 맥없이 무너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상품의 '대량 생산'에 지극히 효과적인 자본주의 국가의 곳곳에서 전에 없던 현상이 벌어진다. 인간과 사회의 존립기반인 '자연'이 파괴되고 '자원'이 고갈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이제 누가 많이 갖고 적게 갖는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생존의 근거지인 자연이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다. 자연이 없으면 인간과 사회도 자본주의도 공산주의도 없다는 인식이 소수의 사람들 사이에 퍼지게 되는데 이러한 사람들이 앞에서 이야기한 '새로운 족속'들이다.

새로운 족속들은 행복한 사회는 물질의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의 '관계회복'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즉 '물질보다는 관계'라는 것이다. 물론 새로운 족속들도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 물질에 대해서까지 부정하지는 않는다. 그 족속들은 이렇게 이야기한다. 꼭 필요한 만큼만 생산하고 (부족하면 나누고) 덜 소비하며, 물질적 부의 생산에 사용되는 시간을 정신적 부를 생산하는데 사용해야 한다고. 자발적 가난과 느림의 삶을 선택해야 한다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선택한 새로운 족속들은 '집'의 문제에 있어서도 자연에 대한 상처를 최소화하는 방식을 택하게 된다. 여기에서 '자연 건축'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다음 이야기는 '상품화된 건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한다.

詩

나비가 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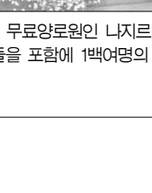
나비가 되어 비상할 날을
애벌레는 기다린다.

날개짓을 하기 위해
누에가 되어 실을 뽑고
끊임없이 노력한다.

애벌레에게 있어서
고통과 시련의 시간은
미래를 향한 포부가 아니었을까.

원하는 길을 갈 수 있고
마음껏 하늘을 날 수 있는
애벌레만의 원대한 포부

그것이
애벌레가 나비로
비상할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 아니었을까....



정혜정
서정대학사회복지행정과
포천학습관 1학년

함께 만들어 가는 아름다운 미래-동남중학교

동남중학교 자랑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남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회장 김성국입니다.

제가 동남중학교를 다니면서 참 많은걸 깨달을 수 있었고 앞으로도 배울게 많은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등교길 주변에 꽃으로 가득 차있는 아주 향기로운 학교, 개교 50주년에 빛나는 역사가 깊은 학교, 학생들에게 친절하고 신경을 많이 써주시는 선생님, 그리고 '끝까지 하라'라는 이념아래 뭉친 끈기 있고 열정이 넘치는 우리 동남중학교 학생들 모두가 우리 동남의 자랑거리입니다.

제가 동남중학교에 처음 입학했을 때는 아무것도 몰라 선생님과 선배가 무섭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고, 왜 그렇게 사람들이 동남중학교에 오고 싶어 하는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모든 선생님들과 선배들이 웃음으로 신입생들을 대해주었고, 처음 보는 친구들끼리도 서로 금방 친해질 수 있었던 것도 그 친절한 웃음 덕분이었습니다. 그만큼 저희 학교는 웃음이 많고 즐거운 학교입니다.

그리고 제가 입학했을 때는 아직 신관이 공사 중이었기 때문에 주변이 깨끗하지 못했고 공사소음도 들려오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공사가 끝난 후 여러 차례 환경미화와 선배들의 노력으로 인하여 그 어디에 내놓아도 뒤지지 않을 만큼 깨끗하고 공사의 흔적이라고는 찾아보기 어려운 청결한 학교입니다.

또한 선생님과 학생회 간부들이 질서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학생들이 보다 질서 있고, 편안하게 급식을 먹을 수 있도록 선생님께서 지도하시고, 복도에서 장난을 치다가 다치는 걸 막기 위해 각 층마다 학생회 간부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희 학교가 발전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학생 한명 한명이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침 자율학습시간에 쓰는 진로노트가 그 이유입니다.

여러 가지 직업과 그 특성을 알게 해주고 자신이 원하는 게 어떤 것인지, 또 잘하는 게 어떤 것인지에 대해 깨닫게 해줍니다. 그럼으로써 자신의 진로를 보다 빨리 설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목표가 생기게 되면서 해야 할 일을 스스로 찾아 할 수 있습니다.

웃음, 청결, 질서 그리고 목표가 있는 저희 동남중학교는 수많은 선배님들과 앞으로 동남중학교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증명해 주듯 포천의 명문 중학교로 이름을 떨치고 있습니다. 동남인 중 한명으로서 정말 자랑스럽고 미래에도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하나 되어 이끌어가는 동남중학교 모습을 바라면서 동남중학교 파이팅!!!

김성국
동남중학교 학생회장

기동성 있는 취재활동 보장

본지 운영위원회 취재차량 구입 지원

본지 취재차량이 본격적으로 취재권역을 대상으로 운행에 나섰다.

본지 운영위원회(위원장 윤이용)가 5천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구입한 취재차량은 스타렉스 리무진으로 차내 TV시설은 물론 편안한 승차감 등으로 신속한 취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지는 운영위원회의 취재차량 지원으로 더욱 활발한 취재활동은 물론 독자들에게 신속한 정보제공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본지 취재차량 스타렉스 리무진.